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 매교시 종료 후 탑재됩니다.(중증시각장애 수험생 시험시간 기준)
- 모든 문제 및 정답은 PDF파일로 되어 있습니다.(단, 듣기 파일은 MP3파일)
- 탑재된 파일은 수험생에게 제공된 문제지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 5 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한문I)

성명

수험 번호

1.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교사: 조선 후기 화가 신윤복의 풍속화를 감상해 볼까요?
 우림: 한밤중에 담 모퉁이에서 남녀가 만나고 있네요. 조선 시대에도 저런 일이 가능했나 봐요.
 정우: 그런가 봐요. 그런데 달의 모습이 이상해요. 불룩한 면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우림: 잘못 그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보고 그린 건가요?
 교사: 신윤복이 서울에 부분 월식이 일어났던 날 자정 무렵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추론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답니다.
 정우: 아! 그렇다면 부분 월식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가 화폭에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교사: 맞아요. 이 그림은 달빛 아래 연인들의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제목을 ‘月下(㉠)人’이라고 합니다.

- ① 淨 ② 貞 ③ 情 ④ 晴 ⑤ 頂

2.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3.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 [1점]



- ① 州 ② 典 ③ 周 ④ 宙 ⑤ 界

4.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보 기>	
ㄱ. 選 - 擇	ㄴ. 問 - 答
ㄷ. 前 - 後	ㄹ. 製 - 造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에 들어갈 것은? [1점]



- ① 大 ② 小 ③ 代 ④ 失 ⑤ 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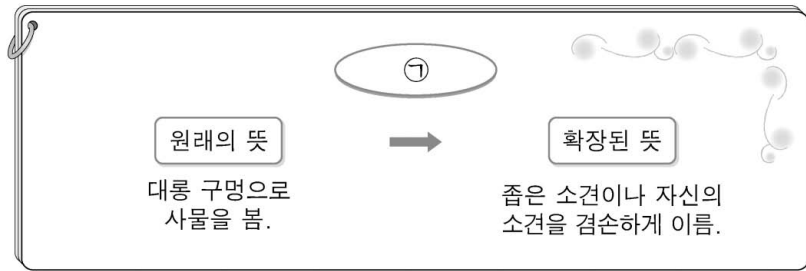
6.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사대부라고 하는 자들도 이 붓과 비슷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 몸에 의관을 갖추어 입고 말을 조리 있게 하며, 법도에 맞게 걷고 엄숙한 기색으로 처세하고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면 모두 군자나 바른 선비 같아 보인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평소의 뜻을 바꾸어 마구 욕심을 부리며, 어질지 못한 마음을 품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대개 그 겉은 아름답게 꾸몄으나 그 속은 온통 개털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 붓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 『계곡집』 -

- ① 堂狗風月 ② 甘言利說 ③ 漸入佳境
 ④ 骨肉相爭 ⑤ 表裏不同

7.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 ① 盲目 ② 管見 ③ 私見 ④ 可觀 ⑤ 主觀

8. ㉠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轉禍而爲福, 因敗而成功.

- 『전국책』 -

- ① 轉 ② 禍 ③ 而 ④ 爲 ⑤ 福

9.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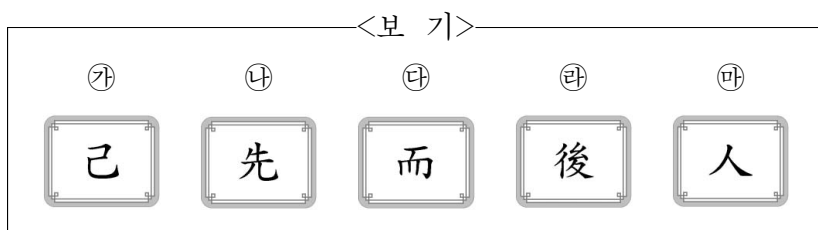


- ① 場 ② 將 ③ 張 ④ 壯 ⑤ 丈

10.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君子, 貴人而賤己, (㉠), 則民作讓.

- 『예기』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11.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 ① 附和雷同 ② 各樣各色 ③ 衆口難防
④ 類類相從 ⑤ 以心傳心

12.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



- ① 알려진 대로 참 뛰어난 능력을 지녔어.
② 유명세에 비해서는 실속이 없는 것 같아.
③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④ 평소 차분한 준비 덕에 재난을 극복한 것 같아.
⑤ 물건을 살 때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해.

13.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답장	X삭제	스캔 신고	목록	위	아래
제 목			고전 명구		
보낸 날			2018년 11월 16일		
보낸 이			선생님		
정승의 말씀은 땅에 엎드려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임금님 말씀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들어야겠군요. - 『낙하생집』 - 고려의 명신 주열(朱悅)이 공무로 정승을 만났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의 깨끗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정승이 ‘엎드려 들어야 한다.’고 나무라자, 반박한 내용입니다.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예(禮)는 있지만 지나치게 공손한 것이 진정한 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윗사람에 대한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예도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정신, 그것이 진정한 예의 본질이 아닐까요?					

- ① 非禮勿視, 非禮勿聽.
② 過而不改, 是謂過矣.
③ 自重其身者, 人不敢輕之.
④ 若要人重我, 無過我重人.
⑤ 言勿異於行, 行勿異於言.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爲學工夫如行路, 所期雖遠, 若行之不已, 則自當至於其㉠處,
若止而不行, 則雖至近之地, 何能至乎?
- 『포저집』 -

14.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 ① 궁극적 목표 ② 구체적 과정 ③ 다양한 관점
④ 합리적 선택 ⑤ 뚜렷한 동기

15. 밑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 ① 배운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해.
② 배움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③ 배우는 사람에게 선의의 경쟁은 필요해.
④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
⑤ 배움에 있어서 꾸준함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

[16~17]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旅館殘燈曉, 孤城細雨秋.
思君意不盡, 千里大江流.
- 이정, 「寄君實」 -

16.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시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
ㄴ. 시의 운자(韻字)는 ‘曉’, ‘秋’, ‘流’이다.
ㄷ.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對偶)를 이루고 있다.
ㄹ. 넷째 구는 ‘千里/大江流’로 띄어 읽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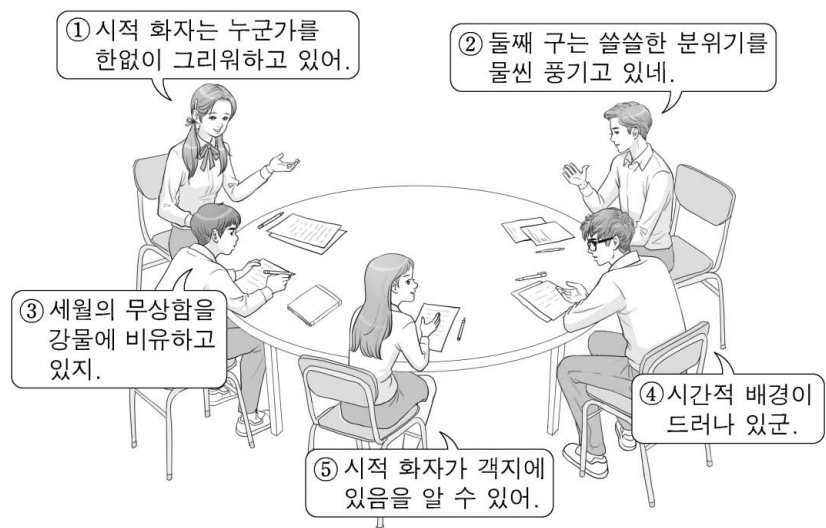
① 시적 화자는 누군가를 한없이 그리워하고 있어.

② 둘째 구는 쓸쓸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네.

③ 세월의 무상함을 강물에 비유하고 있지.

④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군.

⑤ 시적 화자가 객지에 있음을 알 수 있어.



18.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어구로 알맞은 것은?

육지를 지키는 병사 수십 만으로 왜적을 방어하는 것보다
는 병선(兵船) 수 척으로 제어하는 것이 낫습니다. 병선은 이
처럼 소중한 것인데, 그 재목은 반드시 소나무를 써야 하습
니다. 소나무는 거의 백 년을 자라야 배를 만들 수가 있고,
배 한 척에 소요되는 재목은 거의 수백 그루가 되웁니다.
...(중략)... 산에 불을 놓는 것을 금하고 나무를 잘 가꾸도록
법령을 거듭 엄하게 하여, 소나무가 무성하고 산과 들에
재목이 가득하여, 이루 다 쓸 수 없게 된 뒤에 배어 쓰도록
허락하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공자는 ‘(㉠)’
(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모두 그 후환을 염려할 줄 모르면
일을 당하고서 후회해도 미칠 수 없음을 경계한 뜻입니다.
- 『세종실록』 -

- ① 其身正, 不令而行.
② 人無遠慮, 必有近憂.
③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④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⑤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19.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 毋(무): ~하지 마라
- 『대학』 -

- ① 勸善懲惡 ② 莫上莫下 ③ 事必歸正
④ 下學上達 ⑤ 推己及人

20. 시의 주제와 관계있는 것은?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 한 잘못이 땃방석만 하게
동산만 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넙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길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



- ① 己所不欲, 勿施於人.
② 寬而見畏, 嚴而見愛.
③ 律己須明白, 待人要包容.
④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⑤ 察己則可以知人, 察今則可以知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凡曰某事難者, 皆不爲也, 非不能也. 人之才分, 固有限量, 而肯心所指, ㉠事無不成, 怠心所指, 事無不毀. 人之喜事者, 以有肯心而常覺㉡於易也, 人之厭事者, 以有怠心而常覺於(㉢)也.

* 厭(염): 싫어하다
- 『홍재전서』 -

21. ㉠의 풀이로 옳은 것은?

- 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 ② 일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 ③ 이루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 ④ 일이 없다고 이루지 못 하겠는가.
- ⑤ 일한 것이 없으니 이루어진 것도 없다.

22. 의미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而 ② 矣 ③ 于 ④ 又 ⑤ 耶

23.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 ① 治 ② 易 ③ 歡 ④ 難 ⑤ 亂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或問曰: “...(중략)... 以㉠子之能, 何不交貴顯取功名, 乃從閭巷小民遊乎? ㉡何其不自重也?” ㉢趙生笑曰: “...(중략)... 吾疾㉣世之醫, 挾其術, 以驕於人, ㉤門外騎相屬, 家㉥設酒肉以待, 率三四請然後, 肯往. 又所㉦往, 非貴勢家, 則富家也. ... (중략)... 是㉧豈仁人之情哉? 吾所以專遊民間, 不干於貴勢者, 懲此輩也.”

* 閭(려): 마을 * 趙(조): 성씨
* 挾(협): 믿다 * 驕(교): 교만하다
- 『청구야담』 -

24. ㉠~㉥의 풀이로 옳은 것은?

- ① ㉠: 자식 ② ㉡: 향하다 ③ ㉢: 말하다
- ④ ㉣: 살다 ⑤ ㉤: 어찌

25.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와 ㉧의 태도로 모두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① 비판적 | 숙물적 | ② 사교적 | 온정적 |
| ③ 중립적 | 호의적 | ④ 권위적 | 가식적 |
| ⑤ 인도적 | 적대적 | | |

26. ㉨와 짜임이 같은 것은? [1점]

- ① 登校 ② 出席 ③ 贊反 ④ 休息 ⑤ 校內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得天下, 有道, 得其民, 斯得天下矣. 得其民, 有道, 得其心, 斯得民矣. 得其(㉠), 有道, 所欲, 與之聚之, 所㉡惡, 勿施爾也.

* 聚(취): 모으다 * 爾(이): 어조사
- 『맹자』 -

27. 글의 흐름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 ① 天下 ② 道 ③ 民 ④ 心 ⑤ 欲

28. ㉢과 음이 같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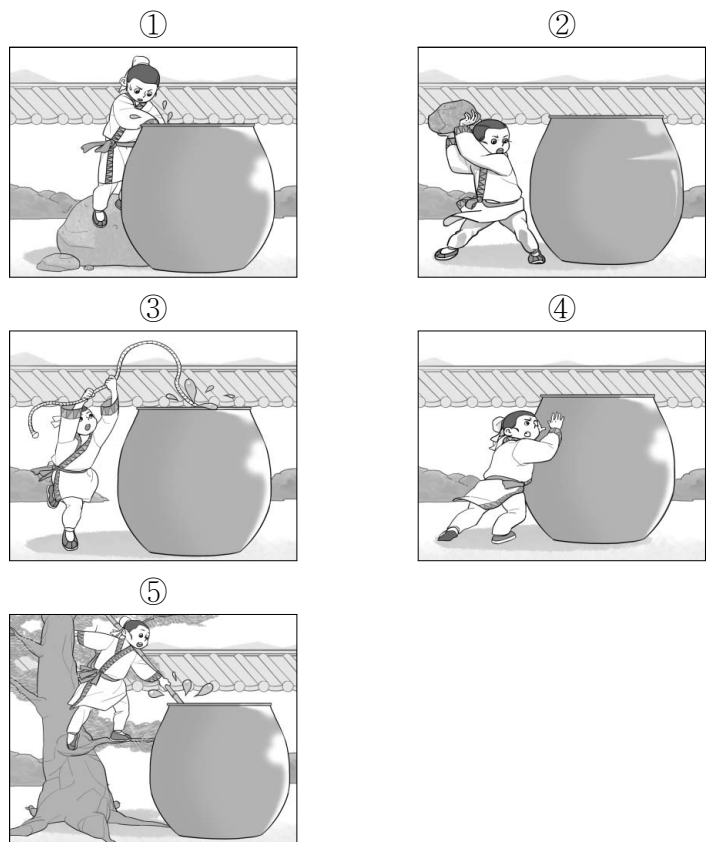
- ① 憎惡 ② 惡童 ③ 害惡 ④ 惡談 ⑤ 善惡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司馬光, 字君實. ... (중략)... 群兒戲于庭, 一兒登甕, 足跌沒水中, 衆皆棄去. 光持石擊甕破之, 水迸, 兒得(㉡).

* 甕(옹): 항아리 * 跌(질): 헛디디다 * 迸(병): 솟아나다
- 『송사』 -

29.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방법은? [1점]



30.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 ① 活 ② 效 ③ 泣 ④ 入 ⑤ 點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